

완도군, 중국 적벽시와 우호·교류 본격화



완도군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적벽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관광·문화 등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신우철 군수 “다분야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

완도군이 중국 지방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적벽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벽시 방문은 해양,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협약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적벽시 등광

평 서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도시는 업무 협약으로 행정 교류·협력,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산업·경제 분야 협력, 기업인·체육인·청소년 등 방문,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 수산업 등 완도가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적벽시는 역사·문화 자

원을 활용한 관광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 대표단은 중국 대표 ICT 기업인 텐센트 관계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 웰니스 관광, 플랫폼 기반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양루동 고전&한중 우호 교류의 집'을 찾아 완도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만통연' 등의 견학·시찰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 문화, 경제, 산업 사례를 접했다.

군은 적벽시 방문을 계기로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적벽시 방문을 계기로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적벽시는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과 신성장 에너지, 스마트 제조 산업 등이 발전한 곳이다.

적벽시의 관할 기관인 후베이성은 인구 6000만명이 거주하는 중국 내 34개 성 중 14번째로 큰 지역으로 중부권 정치·경제·교통의 중심지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뚝은감 농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급

2025년 가격 기준 34개 농가에 3700만원 지원

영암군은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뚝은감 재배 농가에 3700만원을 지급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뚝은감 농가에 처음 집행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품목으로 뚝은감, 무화과,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콩 12개 품목을 지정하고, 각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확정·고시했다. 같은 해 12월 기준 뚝은감 시장가격이

이 최저가격에 미달하자, 두 가격의 차액인 1kg당 173원을 최종 가격안정기금 지급액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가격안정기금 참여를 신청하고, 수확기 계통출하 실적이 확인된 뚝은감 농가 34곳에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생산 면적 대비 과다 출하 농가는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형평성까지 확보했다는 게 영암군의 설명이다.

영암군은 다음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농산물 품목과 최저가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밥상에서 어르신들과 정 나눴다. 강진군은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 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체 식사를 통한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DAY)'를 최근 열어 첫 시작을 기념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강진군

벼 깨씨무늬병 긴급 예비비 투입 강진군, 1103농가 1158ha 집행

강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처음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총 1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 집행할 계획이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조사와 지원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1103농가 1158ha로 집계됐다. 이는 강진군 전체 벼 재배면적 8300ha 대비 약 13.9%에 해당하는 규모로 피해 범위와 정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과 이삭에 병반을 형성해 광합성을 저해하고,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동시에 초래하는 병해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 발생이 집중되면서 농업 현장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이에 강진군은 피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긴급 예비비 투입을 결정하고, 재난등급별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해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 절차를 단축해 영농 재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군이 책임지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피해 농민의 부담을 덜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해남,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상품권 환급

해남군은 오는 14일까지 해남매일시장 내 15개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해남매일시장 내 지정된 15개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소(시장2층 상인회 사무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환급하며,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한다. 기간 내 1인당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점포는 고운농산물, 미란야채, 슬아야채, 옥동이네 바지락, 용민이네 야채, 이양심야채, 정우과일, 은영과일, 별난딸기, 가정통닭, 꼬꼬닭집, 중앙닭집, 하나닭집, 해남닭집, 중앙축산 등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신안, 고향사랑 기부로 ‘노후 생활폐기물차량’ 교체

2028년 2월까지 2년간 모금 목표액 21억5500만원

신안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통해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를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신안군 제3호)으로 선정하고 모금에 나

섰다.

현재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저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의 모금 목표액은 총 21억 5500만원이며, 모금 기간은 지난 9월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 2년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저상형 암롤 5t 차량과 집게차 등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16대와 암롤박스 12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 복리 증진,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 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